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④

◇최초개발한 피대선반

〈지난호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서는 식량마저 바닥이 났다. 전쟁 소식을 전해주던 라디오를 인민군들에게 5만 원을 받고 팔았으며, 공장의 쇠 자르는 톱까지 팔아서 겨우 연명을 해나갔다.

전쟁은 실로 세상을 제멋대로 만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지내던 가까운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마치 자기네들만의 새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뛰었다. 이웃에 토건업을 하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공사를 해주고 20여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전쟁을 만났다. 인민군이 광주를 점령하자마자 그는 2만원을 들고 와서는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것이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이요. 이것으로 모든 관계를 청산합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팔뚝에다 붉은 완장을 차고 갖가지 못 된 짓을 다하고 다녔다. 평소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좌익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잣고개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시내 쪽을 내려다보니 멀리 줄을 이은 인민군들의 후퇴행렬이 보였다. 바로 그 행렬의 앞에서 손을 뒤로 묶인 우익인사들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끌려가고 있었다.

3. 화천시대를 열다

파철공소에서 화천으로

전쟁 중에 인민군들이 공자에서 가져간 물건들은 모두 쇠붙이어서 대부분을 다시 회수할 구가 있었다. 이것이 내가 다시 공장을 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다. 공장 물건의 회수 작전이 끝나자 나는 흩어졌던 직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찾아 나섰다. 나는 공장 문을 열기에 앞서 공장의 상호를 종전의 '파철공소'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다. 나는 고심 끝에 주역 등 동양철학에 조예가 깊은 정창순 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貨泉'이었다. '재물이 샘처럼 솟아난다'는 속된 의미를 넘어 모든 경제활동의 토대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財貨의 源泉'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리하여 1951년 4월 5일 '貨泉機工社'라는 새 간판을 달았다.

전쟁으로 파손된 각급 학교의 교문 수리와 담장 보수, 들끓는 도둑을 막기 위한 가정집의 철책 설치 등이 당시의 주요 일감이었다. 특히 이 무렵 절친한 친구인 건설업자 장태석이 동란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한 광주 양림다리 공사를 재개하면서 다리공사에 들어가는 교량의 철책 일을 맡겨 왔다. 6.25사변을 전후한 시절만 해도 교량 건설은 규모도 최대 수준이었고 아무나 쉽게 따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광주·전남지방의 크다는 건설공사를 도맡아 하다시피 하였다. 특히 나주대교는 당시 우리 기술로 만든 가장 긴 다리였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사업

장태석은 토목공사를 맡고 나는 토목공사에 필요한 철물공사를 주로 하였다.

전남도청이나 일선 시·군청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수문공사를 거의 화천이 도맡아 하게 되었다. 1955년에 시작하여 1958년에 완공을 본 나주다리 공사를 비롯하여 광주 고등법원 공사, 영암 합하농장의 공사들이 그때 했던 큰 일이다.

관급공사는 속된 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공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런 분위기였다. 이 무렵 화천이 따낸 공사 규모는 적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으나, 공사를 맡겨놓고 손벌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뜯기면서도 공사만은 내 실전(實錢)을 들여가며 설계도면에 그려진 대로 제대로 마무리를 지었다. 지금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공사했던 배수갑문이나 수문 등이 30년을 넘은 지금까지 그 많은 홍수와 태풍, 해일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안전하다는 사실이다.

4. 공작기계에 도전하다

내 손으로 만든 최초의 선반

업종을 바꾸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지 반년쯤 지난 1959년 3월 어느 날, 나는 한참동안 빛나는 햇살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다. 뭔지 모를 영감이 내 머릿속을 강하게 때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옳지 바로 저거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만 해도 선반이라는 기계가 있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그것을 제작하는 곳은 없었다. 이 영감은 내가 운명적으로 기계 인생을 걸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곧 설계사 차학준을 불렀다. 나는 그에게 선반을 스케치해서 설계도를 그려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일본에서 공업학교를 나온 기술자였다. 나는 그가 선반을 설계하는 동안 내내 함께 숙식을 하며 지냈다. 그가 도면을 만들기까지는 2개월이 걸렸다. 모형을 뜨고 주형을 만들어 쇳물을 붓기까지는 또다시 2개월이 소요되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찬물에 목욕재계한 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용선로에 불을 지폈다. 치성을 올리고 쇳물을 주형에 부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쇳물 몇 방울이 발등에 떨어졌는데, 나는 그로 인한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일에 몰두해 있었다.

이 같은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처음으로 시도한 선반 제작은 시작한 지 반년만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1959년 8월의 어느 날, 이 나라 최초의 선반(피대선반) 3대가 탄생된 그날의 기쁨과 벅찬 감격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자신감을 얻은 나는 5대를 더 만들었다. 새로 만든 5대를 서울 원효로에서 선반을 판매하는 김금산에게 보내 팔아 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기계를 올려 보낸 지 닷새도 안 되어 연락이 왔는데 다 팔렸으니 또 만들어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김금산의 전화를 받고 나는 뛸 듯이 기뻤다. 모두가 내 세상인 것처럼만 보였다. 또다시 10대의 선반을 더 만들어 서울로 보냈다. 이것 역시 얼마 안가 모두 팔렸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의 남선기공사와 대구의 대구중공업, 배달수 공장 등 3군데의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과 비슷한 선반을 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천이 만든 기계가 우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장인 내가 주물에 관한 한 따를 사람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직접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양질의 원료인데, 나는 이 무렵 군 사격장의 탱크 파편들을 사들여 그것으로 주물을 부었던 것이다. 강도 면에서 일반 쇠보다 월등히 좋은 쇠인 탱크 재료를 원료로 썼으니 선반의 품질이 좋은 것은 당연했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⑯

(규원사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檀君紀 단군기

御國四十餘載, 而有兪之亂. 兪者, 之屬也, 洪水之際, 僥倖得免, 及看水土 定而州里蕭然, 乃乘 東侵, 其勢頗猛, 卽使夫餘會集中外之兵, 討平之. 乃益封夫餘, 北方之地, 使宅牛首忽卽先平壤, 使夫婁居(壬)[壬]儉城, 令夫蘇修樂浪忽, 夫虞監唐莊京, 更封高矢氏於南方之地.

나라를 다스린지 40여 년만에 설유(兪)의 난이 있었다. 설유는 험윤의 족속으로 홍수를 만났을 때는 요행히 그 해를 면하더니, 물과 흙이 겨우 안정을 되찾은 뒤 마을과 고을이 쓸쓸해진 것을 보고는 이내 그 틈을 타고 동쪽으로 침략해 오니 그 기세가 자못 맹렬하였는데, 곧 부여로 하여금 안팎의 모든 병사를 모아 그를 토벌하여 평정케 하였다. 이에 부여에게 북방의 땅을 더하여 봉하고 우수홀(牛首忽)(즉 먼저 번의 평양이다)에 자리잡게 하였으며, 부루로 하여금 임금성에 거처하게 하고, 부소에게는 낙랑홀을 다스리게 하고, 부우는 당장경을 살펴보게 하였으며, 고시씨는 그 봉토를 고쳐 남쪽의 땅에 봉하였다.

於是檀君西至(壬)[壬]儉城, 按撫庶民, 大會諸侯, 令復申天下[農桑之政. 乃北巡而祭天于太白之麓, 封天下]山嶽河川之神, 凡三千餘. 歷牛首忽, 而至肅愼忽, 會北東諸侯, 令祭神誌氏之靈, 遂立廟于夙沙達. 西轉而至奄慮忽, 會南西諸侯, 令祭蚩尤氏之靈, 遂立廟于奄慮達. 復南巡, 而至甲比古次, 祭天于頭嶽之顚. 遂至樂浪忽, 會南東諸侯, 令祭高矢氏之靈, 遂立廟于蘇婁達. 乃還至平壤, 八加及衆諸侯畢集.

그리하여 단군은 서쪽으로 임금성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제후들을 크게 모아 명하기를, 다시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을 천하에 널리 펴게 하였다. 이에 북쪽으로 순행하여 태백산의 기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천하의 산악과 하천의 신을 봉하니 무릇 3천 곳 남짓 되었다. 우수홀을 지나 숙신홀에 이르러 북동의 제후들을 모아 명령하기를, 신지씨의 영령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숙사달(夙沙達)에 사당을 세웠다.

서쪽으로 돌아 엄려홀에 이르러 남서의 제후들을 모아 명령하여 치우씨의 영령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엄려홀에 사당을 세웠다. 다시 남쪽으로 순행하여 갑비고차에 이르러 두악의 꼭대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마침내 낙랑홀에 이르러 남동의 제후들을 모아 명하여 고시씨의 영령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소루달(蘇婁達)에 그 사당을 세우고는 평양으로 돌아오니 팔가(八加)와 뭇 제후들이 모두 모였다.

檀君乃使諸加及國內人民, 各獻祭于日月 陰陽 四時之神, 及山岳 河川 里社之主. 祭畢, 大誥于有衆, 若曰: 惟皇, 一神在最上一位. 創天地, 主全世界, 造無量物, 蕩蕩洋洋, 無物(不)[弗]包, 昭昭靈靈, 纖塵弗漏. 惟皇, 一神在最上一位. 用御天宮, 啓萬善, 原萬德, 群靈護侍, 大吉祥, 大光明, 處曰神鄕. 惟皇, 天帝降自天宮, 率三千團部, 爲我皇祖, 乃至功完而朝天, 歸神鄕. 咨爾有衆, 惟則天範, 扶萬善, 滅萬惡, 性通功完, 乃朝天. 天範惟一, 弗貳厥門, 爾惟純誠一爾心, 乃朝天. 天範惟一, 人心惟同, 惟秉己心, 以及于人心, 人心惟化, 亦合天範, 乃用御于萬邦.

단군은 이에 뭇 가(加)와 나라안의 인민들로 하여금 각기 일월과 음양 및 사시(四時)의 신과 산악과 하천 및 마을의 주인에게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제사를 마친 다음 무리들에게 크게 유시하니 다음과 같았다. 하느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의 하나 되는 자리에 있도다. 하늘과 땅을 시작하게 하고 모든 세계를 주재하며 한없는 사물을 만드시니, 가없이 넓고도 넓음에 감싸지 아니한 사물이 없으며, 신령스럽게 밝고도 밝음에 가녀린 티끌마저도 새지 아니한다.

너희 무리들아! 오직 하늘 본보기를 본받아 모든 선함을 돕고 모든 악함을 소멸시키며, 본바탕이 통하여 맡을 일을 온전케하면 이에 하늘로 향하느니라. 하늘 본보기는 오직 하나요 그 문은 둘이 아니니, 너는 오로지 정성을 순수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면 이에 하늘로 향하리라. 하늘 본보기는 오직 하나요 사람의 마음도 오직 같으니, 오로지 자기의 마음을 잡아 이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치게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교화되고 또한 하늘 본보기에 부합하게 되므로 이에 만방에 이르러 부리고 거느리리라.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총재단회비

△권재혁(부총재)	100만원
△권영성(부총재)	100만원
△권계주(부총재)	100만원
소 계	30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영위(금천)	20만원
△권의철(양천)	20만원
△권혁구(서울)	20만원
△권영갑(수원)	20만원
△권순탁(서울)	20만원
△권학주(원주)	일부 10만원
소 계	11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영기(안동)	10만원
△권혁구(강서)	10만원
소 계	20만원

▣ 찬조금

△권희필(옥소공문중)	10만원

합계 440만원

엎드려 원하건대 여러분은 서둘러 병사를 모집하고 군장비와 군기를 정비하여 협심노력하고 일치단결하여야 한다. 나 권율은 비록 보잘것없고 노둔하여 군대의 선봉이 되어 한도의 요새를 점거하여 왜적으로 하여금 절대 침입치 못하게 하고 기회를 노려서 진군할 것이다.

그리하여 차례차례 제거하여 대군이 되고 의병의 후원을 받으면 강물의 맑음을 기다려서 임금의 행차를 돌릴 것이다.

그리고 승승장구 고개를 넘고 수륙(水陸)에서 일제히 돌진하여 솥에 든 물고기와 굴속에 든 도깨비들을 짓누르듯 하면 왜적의 무리들은 도망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삼군(三軍)의 사기는 크게 떨치게 되고 오묘의 치욕을 조금이라도 갚을 것이다. 이에 바다를 건너 적지인 쓰시마(對馬島)를 곧바로 치는 것도 어찌 어려움이 있으리오.

〈다음호에 계속〉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④

▣ 김 영 헌 (광주시청 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지난호에 이어〉

근래 국가에서 의존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전라도는 모든 일에 중흥의 근본이 된다. 용인싸움에서 60명의 낙오도니 적에게 패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병력을 소모하고 수복의 공훈을 하루 이틀에 이루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죄는 중하다.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의 원수는 오직 일본뿐이다. 관군이 패전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들은 왕래가 잦아 출몰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백성을 괴롭히고 우리 강토를 유린하여 그 화가 연속된 지 40년이나 되었다. 하물며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란 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국을 통일하여 그 흉계를 품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가 부산을 침범한 후 우리가 맹장과 정병으로 적을 섬멸하여 조각배라도 돌려보내지아니하고 또 그들의 소굴을 쳐서 감히 침략의 생각조차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국운이 불행하였다. 조그마하고 추한 왜놈이 승승장구하여 텅빈 군읍을 지나듯이 하는 데도 아무도 이를 막지 못하였다.

왜적들은 우리 땅을 보고 진실로 낙토(樂土)라고 들은 말을 이제 다시확인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보니 후일의 환란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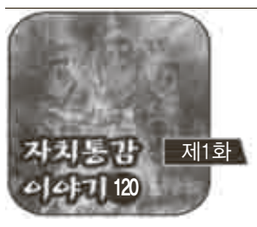
가만히 오늘의 사태를 관찰 분석해 보니 망망대해에서 일엽편주(一葉片舟)를 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젓는 노가 기울어 위태로움이 경각에 달려 있는 듯하다.

모두 힘을 합쳐 사력을 다하여 배에 탄 사람들을 구하면 구제할 수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장차 서로가 모두 물에 빠져 죽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무릇 우리나라 국민은 역대 성군의 올바른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은바가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싸우고 자기를 위하여 분노하며 눈을 부릅뜨고 앞가슴을 활짝 펴서 용기백배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원수를 갚는 마음가짐으로 임금을 구출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보호할진대 어찌 국은(國恩)을 더없이 입고 지역의 군정(軍政)을 맡은 자로서 그 직분이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본도인 전라도는 다행스럽게도 왜적 무리들의 날카로운 공격을 벗어나 온전하기가 예나 다름없으니 우리 군인들은 한 번 비록 패전했다고해서 제자리에서 숨결조차 죽이고 위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군사훈련을 튼튼히 하여 항상 전진할 것이다.

비록 주장(主將)에 응하는 것은 한때의 호령과 지휘에 그치는 것이다. 각군대는 분발하여 국가의 위급을 통감하고 비상한 전공을 세워야 한다.



쫓겨난 황제 유의부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조상을 잘 두어 태어나면서부터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정환경이 나쁜 사람들은 출발점이 달라서 이들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일게다. 그러나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훌륭한 조상을 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다. 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

전에 우리 사회에 7공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버지를 잘 둔 덕택에 멋대로 돈을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그대지 잘 끝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조상을 잘 둔 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절대 조건은 아니다.

역사에도 이러한 일은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진(東晋)을 대신하여 송(宋)왕조를 세웠던 유유의 아들 유의부(劉義符)다. 그는 아버지 유유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19세였으니, 어리다면 어리다고 하겠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황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나이였다.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어도 잘 지켜 나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의부는 그렇지 못하였다. 아버지인 황제가 죽어서 거상(居喪) 기간 중에도 무례한 짓을 했다. 뿐만 아니었다. 스스로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격의 없이 가까이 하였고, 노는데도 절도가 없었다. 아마도 자기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아버지 유유(劉裕)가 죽었기 때문에 자유를 만끽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주변에 이를 충고하는 신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난 범태라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황제 유의부에게 전했다. 간곡하게 황제가 하는 일을 거론하며 잘못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방안을 제시했다. '폐하께서 보위에 오르시어 정사를 재상에게 맡기고 실로 고종(高宗)이 양암(諒闇)하였던 미덕을 같이 하셨으나, 바꾸어 소인배와 허물없이 가까이하시니 사직을 위한 지극한 계책과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정치는 재상에게 맡기고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예절을 지키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를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의부는 궁궐 안에 있는 화림원(華林園)에 점포를 늘어놓고 친히 물건을 팔았고, 또 좌우의 사람들과 더불어 배를 끄는 것을 낙으로 삼고 천연지(天淵池)에서 놀이를 하고 용주(龍舟)에 가서 잠을 잤다. 궁궐 안에서 황제가 점포를 차려 놓고 장사를 한고 뱃놀이를 하다가 그 배에서 잠을 자는 해괴한 행동을 계속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라면 아무리 황제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었다. 도읍에 있던 영군(領軍) 장군 사회(謝晦)가 지방에서 군사를 갖고 있던 단도제와 왕홍(王弘)을 경사로 오라고 하여 힘을 합쳐서 황제 유의부를 내쫓았다. 2년간 황제 노릇을 하던 유의부는 쫓겨났고, 왕으로 강등되었다가 죽임을 당한다. 황제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제명에 죽지도 못한 것이다. 오히려 황제 자리를 물려받지나 않았다면 혹 천수(天壽)도 누릴 수 있었을 테지만....

이 사실을 보면서 역사가 배야자는 그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다. 원래 인군(人君)이 아들을 양육할 때, 말을 할 수 있으면 스승이 그에게 문장을 가르쳤고, 걸을 수 있으면 스승이 그에게 예(禮)를 도왔다고 하면서 송<유송> 왕조에서는 왕자를 노복과 비첩이나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제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요즈음 어른들은 30년 전에 먹는 문제가 제일 큰 일로 생각했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려 한다. 혹 7공자 못지않게 기르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別世

호산 권기범 대구종친회 사무국장 별세

浩山 權奇範 국장(봉화, 복야공파 36世)이 지난 1월 2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대종원 종무위원 및 대구종친회 사무국장으로 10여년간 일인삼역하면서 대구지역 문사발전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타의귀감이 되었다.

또한 대구북구청산하 동장 등 18여년간 근속과 국회의원 보좌관 및 대구북구지구당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평생을 인자, 온화, 다정다감으로 일관했다.

23일 경북 봉화군 봉성면 외산리 선영에 안장했으며, 유족으로서는 미망인 김명선 여사와 4남(순주, 순구, 순후, 순우)가 있다.